브렉시트와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

브렉시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반응

- 영국은 6월 23일(현지시간) 실시된 브렉시트(영국의 EU 탈퇴) 국민 투표에서 탈퇴 51.9%, 잔류 48.1%의 결과로 EU 탈퇴 결정
- 금융시장 상황(한국시간 15시 현재)
 - 파운드화, 유로화의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엔화가치는 급등
 - 아시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
 -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금 및 미국국채 가격은 크게 상승
 - 달러/파운드화 : 1.4877 → 1.3658
 - 달러/유로 : 1.1385 → 1.1016
 - 엔/달러 : 106.16 → 102.44(장중 100엔 이하로 하락)
 - Nikkei 225 : 16,238.35 → 14,923.61(8.10% 하락)
 - 중국 상해종합 : 2,891.96 → 2,864.75(0.94% 하락)
 - 홍콩 항셱 : 20,868.34 → 19,987.68(4.22% 하락)
 - 금 현물(달러/온스) : 1256.86 → 1322.06
 - 10년물 국채(미국) : 1.7458% → 1.4563%

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

- 브렉시트로 인해 외국자본의 EU진출기지로서의 영국에 대한 장점이 상실되어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고 런던국제금융시장의 위상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되어 영국경제 위축 불가피
 - JP Morgan Chase의 CEO Jamie Dimon은 “현재 런던 근무자 16,000명 중 1/4을 감축할 수 있다”고 언급한 바 있으며, Morgan Stanley 및 HSBC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
- EU국가들의 국제적인 협력 보다는 자국이익우선 경향의 확산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 -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은 지연되어 EU국가들의 성장잠재력 저하
- EU탈퇴의 도미노 현상이 다른 국가들로 파급되어 궁극적으로 EU 붕괴로 인한 세계경제질서의 대혼란 발생 가능성도 예상
 - 이 과정에서 EU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-에너지 및 자본시장 통합, 디지털 단일시장 등-의 추진동력이 상실될 우려
- EU의 붕괴를 막더라도 EU의 입지 약화로 미국, 중국 등 강대국과의 협상력 저하로 세계경제질서 재편 가능성

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

- 브렉시트는 영국경제뿐만 아니라 EU 및 전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여타 EU국가로의 도미노현상 등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은 당분간 상당한 불안 우려

한국경제에 대한 영향

□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위축이 예상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
- Bloomberg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본유출 및 대EU 수출 부진 가능성이 높아 아시아·태평양 지역 14개국가 중 브렉시트로 인한 리스크가 6번째로 높은 국가로 분석

아시아·태평양 국가별 브렉시트 위험노출 순위(Brexit Risk Ranking)

구분	외화 보유액	자본이동	단기경제성장률	대EU 수출비중	공공부채	합계 (위험정도)	
1	싱가포르	12	13	9	12	13	59
2	베트남	8	9	12	14	11	54
3	홍콩	11	14	14	13	1	53
4	말레이시아	7	10	11	11	10	49
5	중국	2	11	10	8	9	40
6	한국	5	12	6	9	5	37
7	인도	6	6	4	6	12	34
8	태국	3	8	5	10	8	34
9	뉴질랜드	13	1	8	5	3	30
10	호주	14	5	3	1	6	29
11	일본	9	2	1	3	14	29
12	대만	1	7	13	2	4	27
13	인도네시아	10	3	7	4	2	26
14	필리핀	4	4	2	7	7	24

주 : 숫자가 높을수록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의미

자료 : Bloomberg

종합의견

□ EU 및 선진 G7국가들이 브렉시트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공조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패닉상태에 빠져있는 시장이 불확실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때까지는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함